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살인 물고기 피라니아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피라니아는 성질이 매우 난폭하고 먹성이 좋아 강을 건너는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도 공격해서 뼈만 남기고 모두 먹어치운다. 아마존 강 주변에도 양떼를 키우는 목동들이 있었고 그들은 주기적으로 강을 건너야 했다. 양떼를 데리고 강을 건너가다 피라니아의 습격을 받으면 끔찍한 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여 긴 세월 동안 목동들이 찾아낸 지혜는 희생양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한 마리의 양을 강으로 보낸 뒤 피라니아가 물려들어 그 양을 미친 듯이 뜯어 먹는 동안 목동은 좀 떨어진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무사히 강을 건너갔다. 한 마리 희생양이 많은 양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어린양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구약의 파스카 어린양과 오늘 미사의 1독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사가 요한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라는 개념을 토대로 자신의 복음을 기록하였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은 지금의 미사전례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이다. 먼저 대영광송에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성체에 대한 신앙고백을 한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어서 사제는 성체를 높이 들어 보이며 또다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고 외치며 우리의 믿음을 회중에게 선포한다.

내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청하자. 그리고 그 성체의 힘으로 내가 또 하나의 어린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총도 청해보자.



여인석 베드로 신부 | 교현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49,35-6
화 답 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1-3
복 음	요한 1,29-34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30년

교구 성경사목부는 2022년 12월 17일 상남동성당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걸어온 30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다.

1992년 성경사목부가 첫 여정을 시작하여, 박정일 주교가 첫 파견식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발걸음과 수고로 성경 공부반과 성경을 읽는 소리가 교구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하신 말씀대로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몫을 해내기 위해 열심히 걸어왔고, 그 걸음에 함께해 주신 교구민들 덕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

성경사목부는 교육봉사자를 1기 21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4기까지 193명을 배출, 50개의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봄에는 전교구민 대상 교구 성경 특강을 열고 가을에는 교구 성경 잔치에 교구민들을 초대한다. 말씀과 친밀한 만남을 위해 대림 시기에는 은총성경쓰기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학 동안에도 쉬지 않고 집중교육과 피정, 특강과 소모임 등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에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모아서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30년을 기록하는 데 의의를 두자며 소소하게 시작하였으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 봉사자들에게는 스스로도 잊고 있던 첫 마음과 벅찬 감동 그리고 쓰라린 눈물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다. 30년의 여정 곳곳에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셨음이 드러났다. 하느님께서서는 지난 3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성경 교육봉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교육봉사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매일매일 배우고 있다.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앞으로의 30년을 새롭게 이끄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지난 30주년을 기념하게 하셨음을 깨닫는다.

하느님의 계획에는 늘 그것에 협력하는 이들이 있었듯이 성경사목부도 그러하였다. 주교들, 사목국장 신부들과 본당 신부들, 역대 지도 수녀들과 봉사자들, 현 봉사자들, 교육반 봉사자들, 본당 수강자들과 교육분과 관련자들, 교구민들... 모두에게 감사로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30주년 기념행사는 교구민들의 축제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다.

성경사목부 30주년 기념미사에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신부를 비롯한 6명의 사제들과 수도자들, 전·현직 봉사자들과 교육반 봉사자들, 수강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감사와 축하, 그리움과 기쁨이 가득했던 기념미사에서는 레타레 성가대의 감동적인 성가가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고, 축하식에서 봉사자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 '주만 바라보아라'는 보는 사람의 가슴도, 하는 사람의 마음도 벅차오르게 하였다. 미사와 축하식 이후 이어진 식사에서는 그간 만나지 못했던 퇴임 봉사자들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 옛날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었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성경사목부는 지나온 30년이 그러했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마산교구의 아름다운 발이 되고자 한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루카 4,18)

시극 『순교자의 딸 유섬이』

강희근 요셉 시인/ 가톨릭문인회

이 시극은 필자의 시, 평론, 수필 외의 장르로서는 처음으로 쓴 창작집이다. 2016년 초봄 당시 우리 교구 총대리 배기현 신부님께서 복자 유항검 순교자의 딸에 관한 자료를 필자에게 넘겨주시고 이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문학 작품을 시도해 볼 수 없겠느냐고 타진해 오셨다. 그 자료는 천주가사 연구가 하성래 교수가 쓴 <거제로 유배된 유항검의 딸 유섬이의 삶>(2014, 4월 호 교회와 역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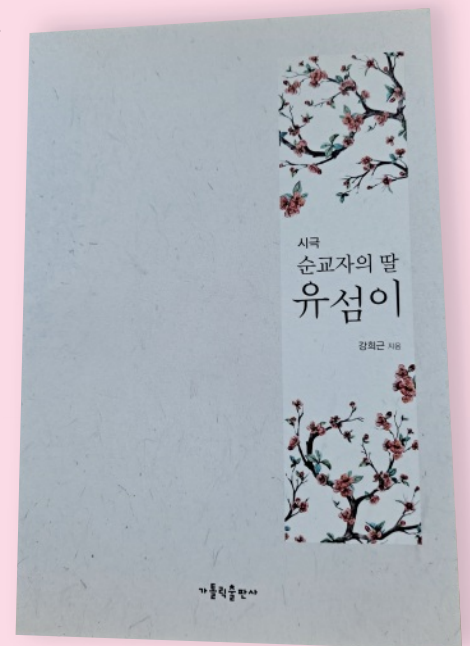
그 글은 9살 여자 아이 유섬이가 1801년 신유박해 때 부모를 순교로 잃고 큰 오빠와 둘째 오빠까지 처형된 뒤 거제도 관비로 유배되어 동정을 지키며 71세까지 살다가 죽은 참으로 슬프고 거룩한 내용이었다. 하 교수는 필자가 학위논문을 쓸 때 참고자료로 쓴 <천주가사> 연구가로 알고 있었던 분이어서 친숙감이 있었다. 그런데 하 교수는 우연히 거제도호부사를 역임한 하점락의 문집 <사헌유집>의 해제를 집필하다가 그 뒷부분 <부거제附巨濟>에 들어있는 유섬이의 사연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행적과 앞뒤 관련 자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유섬이를 단순히 유섬이 한 사람의 비극적 생애로 읽지 않았다. 교회 초기의 피바람과 유섬이의 울케 언니 이순이 누갈다의 실천적 신앙의 표양을 연결하면서 이야기가 갖는 숨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총대리 신부님께 시극을 써보겠다고 말씀드렸다. 작품을 공적으로 표명하고 쓴다는 일은 소소한 축하나 행사시를 제외하고는 시력 50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모험을 거는 일이었지만 갈매기 우는 바닷가 섬마을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섬처럼 떠서 파도에 일렁이는 삶을 살아낸 그 생애를 두고 도무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전 4막으로 주인공의 생애를 극화하면서 필자는 유섬이가 되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었다. 이렇게 쓰인 『순교자의 딸 유섬이』의 경우 기본적인 액자 속에 전개되는 인물이나 사건들은 대부분이 상상이고 창작의 산물이다. 만약 다른 작가의 손으로 쓰인다면 다른 각 편으로 독자들 머리맡에 놓일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갈 즈음 총대리 신부님께서 제5대 마산교구 교구장 주교님이 되셨다. 이 일도 참으로 극적이었다. 콘스탄틴 주교님의 교구 50주년 기념행사 스케줄에 따라 시극의 세미 뮤지컬로의 각색과 공연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2년에 걸친 서울, 전주, 진주, 거제, 창원, 마산 공연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여기 공연에 힘이 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공연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작품이 가톨릭신문사에서 주는 20회 가톨릭문학상 특별상을 받은 것이 그 하나이고, 故 장익 주교님께서 이 작품의 작품성에 주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그 둘째였다.

어쨌든 이 작품의 흐름은 프롤로그, 피어린 초남이 마을, 안골의 달, 매화나무에 매화나무, 유처녀의 성城, 에필로그 순이었다. 순교 과정의 전주 초남이 마을, 유배된 이후 섬이의 삶, 누갈다 울케 언니를 닮아 온갖 유혹을 물리친 사생활, 마을에서 유처녀를 지켜준 사건들 등이 파노라마처럼 흘렀다. 필자에게는 이 작품 이후 유섬이의 정신, 유항검 복자의 가족 신앙이 행동의 지침이다. 가족들 다 주님께로 가고 홀로 남아 갈매기처럼 떠다니 불쌍한 우리 유섬이, 그 눈물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다.





2023년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1월 3일 오후 2시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서품식에서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3명의 부제를 사제로, 1명의 신학생을 부제로 서품하였다. 이날 서품식에 함께한 교구 사제, 수도자, 신자들은 새 사제와 부제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이창범 라자로 신부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54)

찬미 예수님!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구암동본당의 이창범 라자로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제직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사랑, 관심으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백인대장이 하였던 고백,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54)라는 그 고백은 제가 평생 동안 닦아가야 할 주님에 대해 묵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 그리고 인간의 가장 낮은 신분 곧 사형수가 되시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내어줌의 모습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닦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사제로서 첫발을 내딛으려는 제가 사제로서 예수님을 닦아 늘 겸손하게 봉사하며 살아가길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예레 1,7)

평화를 빕니다!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된 문산본당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소중한 봉사의 직무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느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하느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주신 교수 신부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기도로 함께 힘을 실어주신 선배 신부님들과 동료 형제들, 수녀님과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는 신학생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늘 품고 다니던 질문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6)라는 구절을 서품 성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제품을 받은 뒤 어느 날,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고 제 세례명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처럼, 저 또한 늘 파견되는 삶을 살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저 말씀을 서품 성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어울리는 사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속에 머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신영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찬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고 주님의 도구로서 이 길을 시작하는 옥봉동본당 장신영 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제가 되어 이 길을 시작하는 지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 들면서도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과 사제로 살아가려는 제 마음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응답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제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이억민(바오로) 신부
1996년 1월 17일

교구/본당

전국 사목국장회의

일시: 1월 17일(화)~18일(수) 1박 2일
장소: CBCK

전국 성소국장회의-비대면

일시: 1월 19일(목)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월 기도모임

일시: 1월 16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215차 ME주말 안내

일시: 1월 27일(금) 19:00~29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1월 20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신청
(문자 발송-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일정: 2월 3일(금)~12월 17일(주일)
2박 3일 10회, 1박 2일 1회,
현장실습 별도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모집: 40명(선착순 모집)
※ 인원 미달 시 교육 취소 될 수 있음
교육비: 1백 70만 원(비용 산출내역-교육비 1백만
원, 숙박비 1백 1십 6만 4천 원) 현장실습비
별도(총 교육 비용 2백 1십 6만 4천 원 중 4십
6만 4천 원은 교구에서 지원하오니 1백 70만 원
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 희망자 사회복지국
(055·249·7042)으로 연락바랍니다.
접수: 신청서를 1월 27일(금)까지 팩스 전송
(249·7044)

계좌: KEB하나은행, 160-890100-04505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기 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접수: 1월 4일(수)~2월 6일(월)
전형일정: 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참조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문의: 061·432·9240~1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목)

일시: 1월 28일(토) 10:00~16:30
장소: 부산분도명상의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3271·0766(권 벨라벳다)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월 10일(금)까지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우편접수 가능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수강생 모집

내용: 홈토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053·593·1273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22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2023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일시: 7월 31일(월)~8월 2일(수)
장소: 의정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150명
참가비: 17만 원(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회원 별도)
문의: 02·2268·7103/ 홈페이지: www.pmsk.net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늘품직업재활센터 ‘늘품은견과’ 설날 선물 사전 예약 판매

늘품직업재활센터는 창원시에서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사전 예약 주문 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늘품은견과 플러스: 기본세트 1박스+답례품 2통 (34,000원→30,000원)/ ▶ 늘품은견과 선물형: 기본세트 1박스+크리스탈보자기 포장(26,000원→23,000원)/ ▶ 늘품은견과 실속형: 기본세트 1박스(22,000원→20,000원)
사전주문기간: 1월 18일(수)까지
문의: 055·247·5190, 010·2568·5190

로템의집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사회복지사 1명
접수: 채용시까지,
전자우편(rothem03@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로템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문의: 055·292·4747
▶ 구제적 사항은 로템의집 홈페이지(www.rothem03.or.kr),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샬레시오성미유치원 교직원 모집

●모집: 유치원 방과후 교사 2명
자격요건: 유치원 정교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교사 경력자 우대
근무시간: 13:30~17:30
●모집: 조리사 1명
자격요건: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학교 급식소 및
유치원 근무 경력자 우대
근무시간: 월~금 08:00~17:00(근무 시간 협의 가능)
접수: 우편-sungmi6104@hanmail.net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소: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66번길 33
문의: 행정실 055·297·6104
▶ 면접일자 개별 통보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월 16일(월) 19:00	중앙동성당	치유하는 삶	이형수 블라시오 몬시뇰(원로사목자)		010·5072·5612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	--	---	--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3

최혜숙 데보라(양덕동본당)

성지 순례도 완주하지 못하였는데, 뜬금없이 무슨 공소 순례를 하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언제 공소를 한곳이라도 가볼 기회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공소 순례.

9월 18일 무두묘로 유명한 사봉공소를 시작으로 목조로 된 성전 내부가 인상적이었던 삼가공소, 병인박해 이후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는 옥중공소, 병의 진행상태가 호전된 음성 한센인들이 생계수단으로 가축을 키웠다는 영신공소, 1827년 정해박해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가지리, 가조, 백운, 운산공소.

오늘 만이라도 좋으니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예성공소, 철탑에 달린 종이 삼종을 떠오르게 하며 무너져가는 공소 공배공소, 벽화가 눈에 들어오는 초라한 건물에 성모님이 순례객을 반기는 장죽공소, 바닷길을 끝없이 달리다 보면 나오는 남해를 품은 은점공소,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공소들.

처음에는 아흔아홉 마리의 어린양을 우리에게 두고 한 마리의 어린양을 찾아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깊고 깊은 산중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애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박해를 피해 피난와 뿌리를 내린 공소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만 바라보고 지켜온 공소들, 신앙선조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순례가 깊어질수록 우리들(도시 신자들)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준 그들(공소신자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뿌리가 튼튼하니 좋은 영양분을 먹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순례를 마치면서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양 우리에게 두기만 해도 튼튼한 뿌리를 스스로 내리는 그들은 한 마리의 어린양이 아니라, 아흔아홉 마리의 어린양이었고, 우리들(도시 신자들)이 한 마리의 어린양이었다.

내 돈 들여 순례해, 다녀와서 5만 2천 원 자진 계좌이체 시켜야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주문이다 싶었지만, 공소는 외면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 한 신앙선조를 가진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이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 나를 반성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4

조형승 세실리아(양덕동본당)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싶어 애써보지만 언제나 몸과 마음은 따로 국밥이다. 초여름 더운 바람이 온몸을 데울 무렵 남편에게 공소 순례를 제안하였다. 교통이 불편한 공소 순례길을 운전하여 완주한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고맙게도 남편 요셉의 적극적 동의와 안전운전으로 2인 1조 부부순례단의 공소 순례 일정은 가볍게 막을 열었다.

공소 순례 추천코스를 따라 시작한 1차 순례길은 힘이 들었다. 시골 도로가 공사 중이거나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멈춘 지점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살펴보고 도보로 길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어찌저찌 공소에 도착하곤 하였다. 한참을 헤매다 도착한 공소 마당에서 반겨 주시는 성모님은 반갑고 포근함의 극치였다.

성모님을 뵈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나를 마중하는 듯 먹먹한 감동이 가슴을 휘감곤 하였다. 공소를 방문하면서 드리는 '순례전 기도'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 중심으로 기쁘게 살았던 신앙선조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2차 순례길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오의 여름 햇볕을 길 위에서 온몸으로 받으며 사고 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순례전 기도'를 바치면서 공소 순례 때의 기쁨을 오래오래 기억해 두고 싶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의 모든 여정을 돌보아 주소서. 아멘!





“이주민 사목이라?”

최경식 야고보 신부

찬미 예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주민 사목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의 공식적인 이름은 마산교구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입니다. 창원이주민센터라고 줄여서 부르고 저는 작년 부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마산교구 안에는 크고 작은 특수 사목이 있습니다. 교구청에 근무하는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복지관, 병원, 학교 등등 본당 외 다른 곳에 근무하는 신부님들을 특수 사목 신부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 중의 특수가 이주민 사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사목 대상자이고 또한 그 분들이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가톨릭여성회관에서 1995년 8월부터 영어미사, 한글학당, 각 문화행사를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가톨릭 사회교육회관(현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외국인 노동상담소가 설립되었고 2015년 이주사목 전담사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민 사목을 시작합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면 이주민센터 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선생님, 베트남 공동체를 담당하는 베트남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10년동안 필리핀 현지사목을 하다가 작년에 협력 사제로 부임하셔서 필리핀 공동체 맡고계신 윤종두 신부님이 계십니다.

저희 센터는 창원, 진주, 김해, 통영, 거제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이주민 친구들, 다문화가정, 외국인 기술자들이 사목 대상입니다. 사목적 범위도 넓고 그 대상도 너무 다양합니다. 통역 지원 및 노동, 법률 상담은 기본이고 의료지원, 한국어 교육과 함께 교육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와 전례 중심으로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타국에서의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윤 신부님이 오셔서 저는 후원회 모집을 위해 이 본당, 저 본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당에는 성소후원회, 군중후원회, 농어촌후원회 등등 많은 후원회에 가입한 분들이 많아서 후원회 모집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주사목후원회까지 가입해주십사 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까지 들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꺼이 후원회 월 회비에 약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저희 마산교구 이주사목후원회에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노동을 대신하는 많은 이주민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상남도가 이주민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 신앙이 다르더라도 한 하느님에게서 난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우리는 이주민에게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임을 깨닫고 또한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청합니다.